

2025년 7월 7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20장	다함께
기도 박병근 안수집사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5:5~10	인도자
찬송 주 믿는 나 남 위해	새벽찬양대
설교	· 『고난의 시대, 신앙을 지키는 세 가지 태도』 · 이신기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함께
찬송 382장	다함께
축도	설교자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 2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 3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 4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 담당

7/8(화)	7/9(수)	7/10(목)	7/11(금)	7/12(토)	7/14(월)
이철용 안수집사	구성수 안수집사	이형수 안수집사	권인영 안수집사	전종우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 오늘의 말씀 < 베드로전서 5:5~10 >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 참고구절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7월 7일(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겸손히 순종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주님이 약속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문안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섬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모든 제직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힘써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